

#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최근 5년간 북중무역 비교를 중심으로

정형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hgjeong@kiep.go.kr

## I. 들어가는 말

2018년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세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나타났던 해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외교적 변신은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도 낳게 했다. 그러나 비핵화 관련 실질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북미간의 핵협상은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고, 북미간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강력한 제재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는 지속되었다. 특별히 2018년도는 북한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며 시련을 겪게한 해이기도 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액이 전년 58.3억달러 대비 14.6%(약 8.5억달러) 감소한 49.8억달러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전년 대비 37.3% 감소한 16.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나마 수입은 전년 대비 1.4억달러 증가한 33.3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3% 증가한 바 있다.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본고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국이 예년과 다르게 대외무역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해관통계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sup>1)</sup>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북중무역 월별 총액을 토대로 2018년 북중간 무역관계를 분석하고, 최근 10년간 북중무역 데이터를

토대로 북중간 무역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여 2018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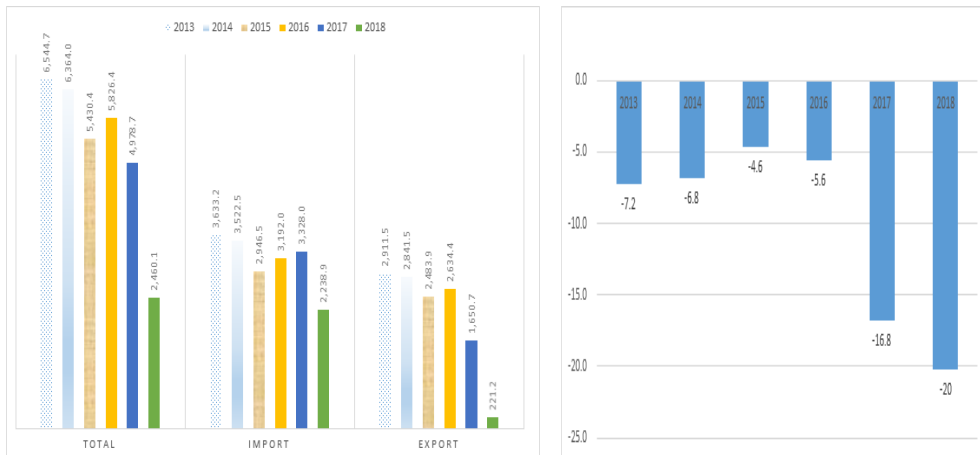
## II. 북한의 대중무역

### 1. 2018년 북한의 대중무역 현황

2018년 북한의 대중무역액은 24.6억달러로 2017년 49.8억달러에 비해 약 50% 감소했고, 강력한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 58억달러에 비해서는 약 6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북중 통계 발표 이래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금액이다. 2018년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2017년 16.5억달러에서 약 87% 감소한 2.2억달러로 급감하였다. 수입 역시 2017년 33.3억달러에서 약 33% 감소한 22.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도 중반부터 더욱 더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그 제재 효과가 2018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좌) 동향과 무역수지(우)

(단위: 백만달러)



자료: KITA 통계와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이는 북한만을 특정해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국 통계 전반에 걸쳐 중국 당국이 이를 발표하는 것에 과거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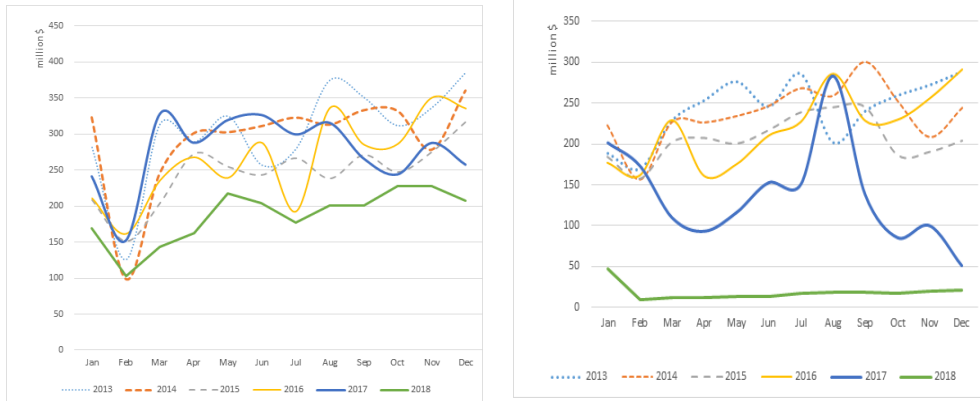
[그림 1]의 맨 왼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무역액은 2013년에 65.5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의 왼쪽 그래프의 중간에서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2018년에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왼쪽 그래프에서 북한의 대중수출액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북한의 대중수출이 매우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수출이 수입보다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2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이 역시 북한 통계가 발표된 이후 기록된 최대의 무역적자이다.

## 2. 월별 대중무역 현황

다음 [그림 2]의 (좌)는 2018년 북한의 대중 월별 무역동향을 최근 6년간 추세와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북한의 대중수입은 연초에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그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8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8년 북한의 대중수입액은 최근 6년치 추세보다 현저히 낮은 22.4억달러로, 이미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월별 수입액이 그 이전 5년 치 수입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이전 5년 평균치인 33.2억달러보다 약 10억달러 정도가 감소한 금액이다.

아래 [그림 2]의 (우)는 2018년 북한의 월별 대중수출 변화를 최근 6년간 추세와 비교한 것이다. 2017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북한의 대중 월별 수출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연초에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북한의 월별 대중수출액이 2017년 12월 대중수출액인 5천만달러 수준 이하로 하락하여, 2018년 전체 기간 동안 매우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해관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2017년 북한의 대중수출액 16.5억달러, 2016년의 26.3억달러에 비해 각각 87% 그리고 92%나 감소한 금액이다. 이로써 유엔안보리와 중국의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시행된 2017년의 대북제재 효과가 2018년도에 들어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2018년 북한의 대중 월별 수입(좌) 및 수출(우) 동향



자료: KITA 통계와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8년 북중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중수출이 전년 대비 87%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17년 이래 북한의 상위 수출 5개 품목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나타난 결과이다.<sup>2)</sup>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2017년도 중반 이후에 시행된 것을 보면, 2018년도의 북한의 대중수출 급감은 이러한 제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9년 2월 현재 북한의 대중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별 분석은 중국 당국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자세히 분석할 수 없으나, 2018년도 북한의 대중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보면 중국 당국은 무연탄, 철광석, 의류, 수산물 등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북한의 수입에 대한 제재 역시 2018년에는 북한의 수출에 대한 제재만큼 엄격히 지켜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에 새롭게 추가된 대북수출 제재 품목인 정제유(이전 공급량의 55%인 200만배럴까지 공급 가능), LNG, 콘덴사이트, 항공유의 전면 금지 등을 비롯해 일반 수입품목에서도 그 규모가 상당 부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북한의 수입이 수출만큼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수출에 대한 제재가 수입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북한의 수출상품은 상위 5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으나 수입의 경우는 수입 품목과 양이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2) 북한산 무연탄(HS코드 270111)은 UNSCR 2321호(2016. 11. 30)와 중국 상무부 고시 12호(2017. 2. 17)에 의해 2017년 3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북한의 의류 품목(HS코드 61, 62)은 UNSCR 2375호(2017. 9. 11)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2017. 9. 23)에 의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철광석(HS 코드 72, 2601)은 UNSCR 2371호(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거 2017년 9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수산물(HS 코드 03)은 UNSCR 2371호(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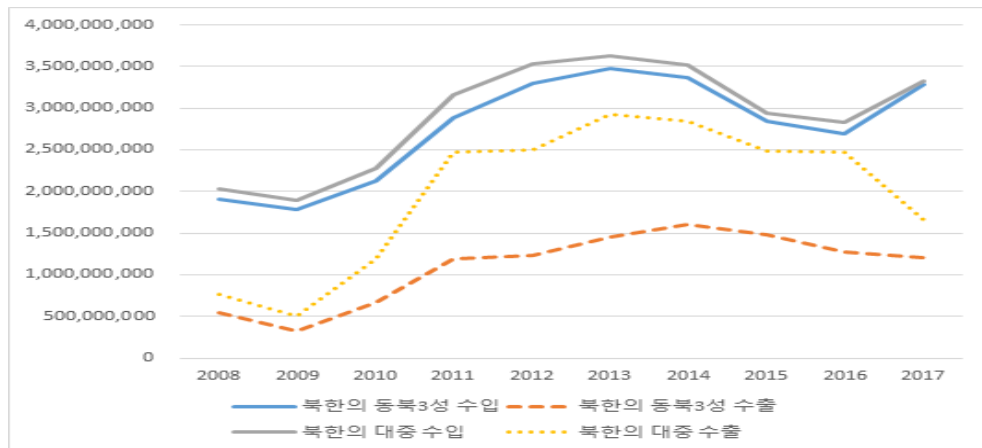
### 3. 북중무역 유형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 북중무역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으로 본 절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북중무역 유형 분석을 통해 2018년 북중무역을 평가하고 201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적 여건을 전망하고자 한다.

2017년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동북3성으로부터 북한의 대중수입액 33.3억달러의 98%를 차지하는 32.8억달러 규모의 수입을 하고 있다. 즉, 동북3성은 북한수입의 원천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이 동북3성으로 수출한 금액은 약 12억달러로, 북한의 대중수출 총액인 16.5억달러의 72.5%를 차지한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동북3성 비중이 2013년 경우 약 50%에 불과했으나, 2017년 중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북한의 중국 및 동북3성 대상 무역 추이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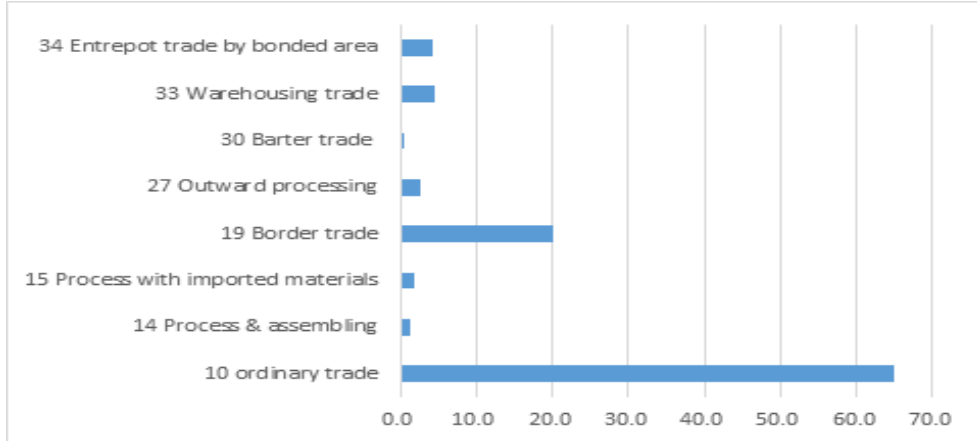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 통계에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 해관통계는 교역 유형을 총 18개로 분류하여 무역상대국과의 통계를 밝히고 있다. [그림 4]는 북한의 대중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북3성으로부터의 수입 유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2017년 북한의 동북3성으로부터의 수입에 있어서 일반무역(ordinary trade)이 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변경무역(border trade)이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15% 정도는 중계무역(entrepot trade)이나 창고무역(warehousing trade), 역외가공, 보세 또는 위탁가공형태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북한의 동북3성으로부터의 수입 유형(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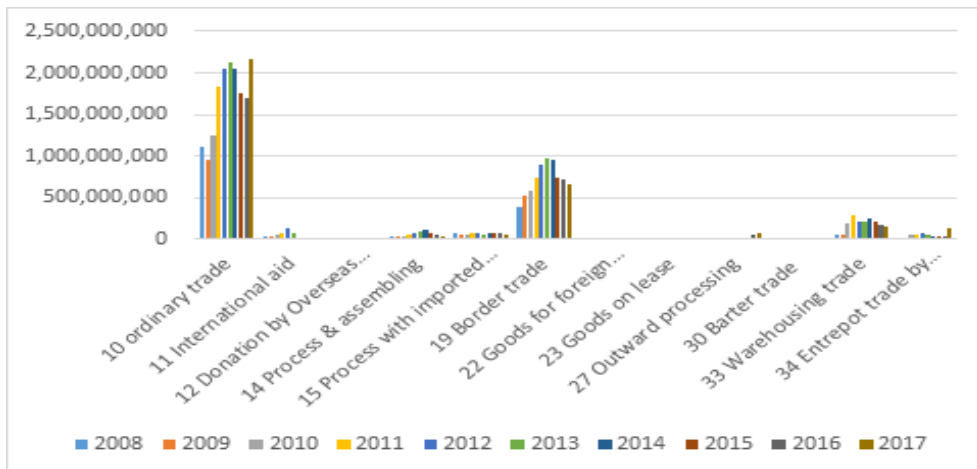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5]는 북한의 중국으로부터 수입거래 유형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거래 유형은 일반교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경무역이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여 동북3성과의 수입거래 유형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북한의 대중 수입 유형 추세: 2008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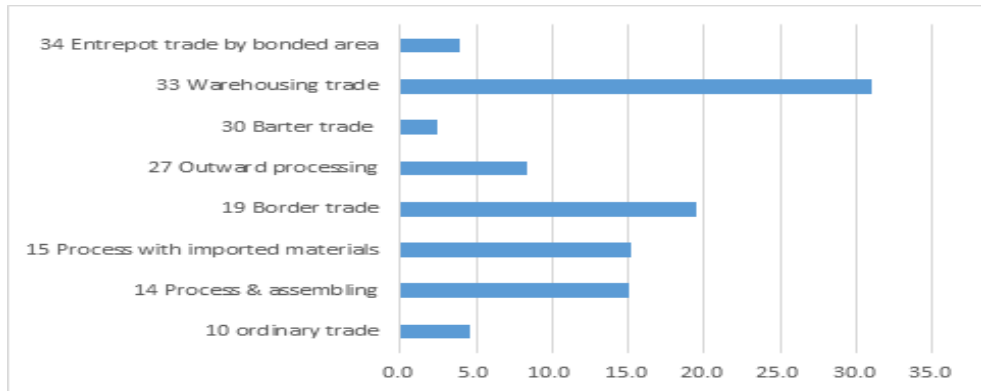
(단위: 달러)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면, [그림 6]의 북한의 동북3성으로의 수출거래 유형(2017년 기준)에서는 일반교역이 4.6%에 불과하고, 창고무역을 포함한 위탁 가공형 무역의 총액이 약 70%를 차지한다. 이는 동북3성이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가공무역이나 창고무역 등의 중계무역을 일반교역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 북한의 동북3성으로의 수출 유형(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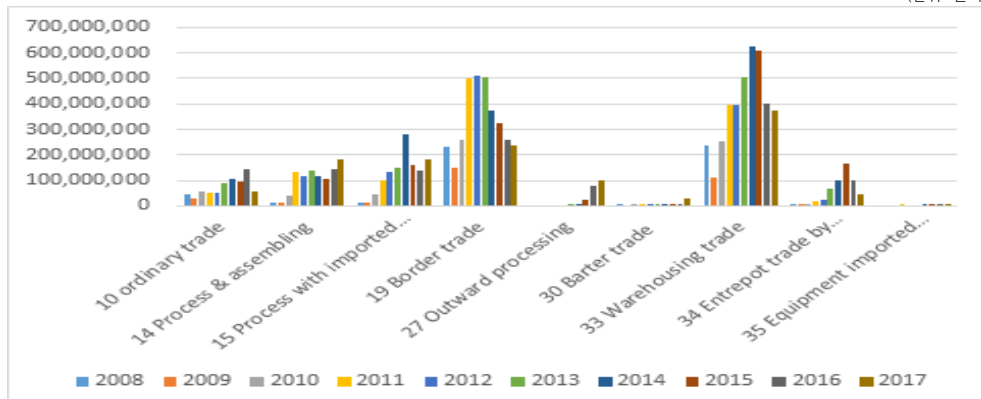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7]은 북한의 동북3성으로의 수출거래 유형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나타낸 그림이다. 10년간 양 지역의 수출거래 유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창고무역을 포함한 위탁 가공형 무역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일반교역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특정한 연도의 현상이 아니고 양 지역의 교역 구조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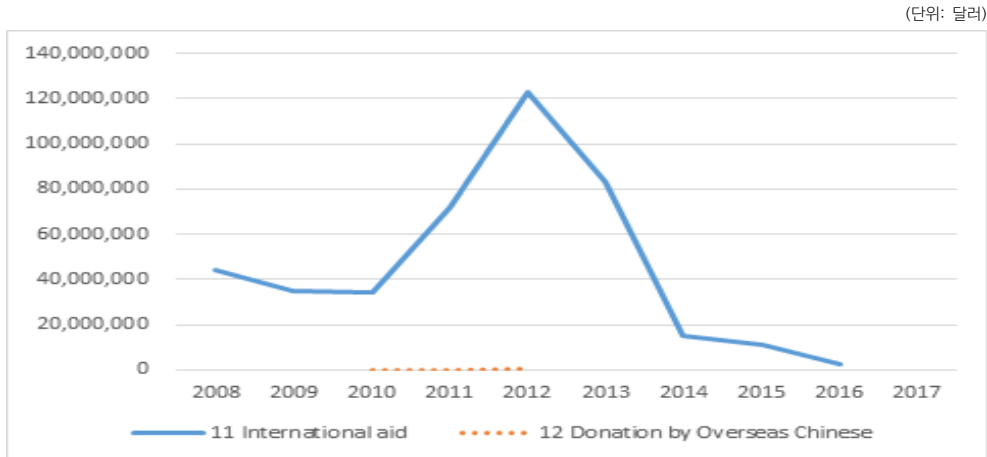
[그림 7] 북한의 동북3성으로의 수출 유형 추이(2008~17년)

(단위: 달러)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8] 중국의 대북원조 추이(2008~17년)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의 해관통계는 중국 당국이 북한에 제공한 원조 금액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8]에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가 2010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첫 해라 할 수 있는 2012년에 1억 2,000만달러가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그 액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중국의 대북원조는 그해 중국의 대북수출액의 3.7%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는 0.1%에도 못 미쳐 악화된 북중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북제재를 시작한 2017년에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완전히 중단했다.

### III. 나가는 말

본고는 북중교역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북중교역 유형 등을 근거로 2018년 북중무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2018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해였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2018년도 대중수출액은 전년 대비 87% 감소한 2.2억달러로 급감했는데, 이는 2016년 북한의 대중수출액에 비해 92%나 감소한 것이다. 북한의 대중수입 역시 2017년도와는 달리 전년 대비 33%나 감소했다.



2017년 북한의 대중수입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지난 5년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도 북한의 대중수입 감소는 북한의 구매력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의 수입 감소는 북한의 산업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특히 대중수출이 전년 대비 87%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역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북한의 무역적자 역시 2017년 16억달러로 급증한 상황에서 2018년에도 20억달러에 이르는 등 북한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 내 시장 물가 등 경제적 불안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미스터리다. 북한경제가 매우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에 의한 경제라고는 하지만, 무역의존도 역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고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역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중국경제 침체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문 분석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대중수입에 있어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압도적이다.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는 동북3성의 비중이 72.5%로 수입비중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동북3성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무역 역시 동북3성의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으며, 특히 동북3성이 중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더불어 동북3성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북한의 수입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도 북한의 대중수입 중에서 일반 교역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대북제재 품목이 그리 폭넓지 않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제재에 의해 수입이 감소되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북한의 구매력 감소에 따라 감소했을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 가공무역이나 중계무역 등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아 2018년도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대중수출의 경우는 일반 무역 비중이 매우 낮고 이 부분에서의 무역 감소는 이미 2017년에 대북제재 품목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의 감소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창고무역을 포함한 위탁 가공형 무역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상무부 고시(17. 8. 25)에 의해 북한의 기업 및 개인의 중국 내 합자, 합작, 외자 기업 활동 금지, 기존 설립된 기업의 증자 및 규모 확대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 이 부분에서의 2018년도 비중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 재개 여부이다. 앞서 보았듯이 중국은 2017년에 북한에 대한 국제원조를 중단했다. 2018년도의 세 차례에 걸친 북중정상회담을

감안할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조를 제공했을 개연성도 있으나,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미중간 무역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재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19년도의 북한경제는 더욱 더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도 외환보유액 감소에 따라 2018년 대비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된다고 하면, 현재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류에 대한 위탁가공 합작도 금지되어 있어 이들 교역액 역시 2018년 수준이나 그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실천과 함께 진전을 보이고 추가적인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재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매우 가시적인 비핵화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북한의 고통도 더 커져만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제재 효과가 더 가시화될 2019년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은 2018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2019년 들어 더욱 심화될 북한의 경제적 결핍이 북미간 핵협상에서 단초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 참고문헌

〈웹사이트 및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중국해관통계, 2008~17년.